

LG석유화학, 노사문화 우수상 수상

KT·애경P&C는 최우수상 영예 ... 태평양도 노-사 모범기업으로 선정

노동부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월16일 발표했다.

KT와 애경P&C는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차지했으며 하이닉스반도체 청주사업장, LG석유화학, 태평양, 나라M&D 등 4개 사업장은 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는다.

장려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월로펌프, 킹스코 등에게 돌아갔다.

1990년대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업장으로 손꼽혀온 KT는 2001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해 경영설명회, 노사 대토론회, 고용보장 선언 등을 발표하며 줄곧 무분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인 애경P&C도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1명의 근로자도 감원하지 않았고 노조도 협력적 노사관계에 앞장서 2001년 이후 4년 연속 임금·단체협약 무교섭 타결의 결실을 얻은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편, 신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은 12월17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화학저널 2004/12/17>